

2013.1.10

정감영 증장님께

정감영 증장님께.

증장님, 안녕하세요! 제사건 사해가 났습니다. 사해복 많이 받으시고
2013년 한해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2005대 경영학부 학생 신동영입니다. 4학년
원정입니다. 다들 알고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에서의 저를 맞이하러,
이렇게 학생 대표자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영학부는
학내 생활 등 가치의 학생을 목표로, 우리들의 생활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등 다양한 대학문화, 공동체 문화는 사회사회의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대표자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내의 다양한 사람들을 대해 관리하고, 해결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사학기를 맞이하며, 현재 학생대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등록금'입니다. 몇몇 저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이슈가 연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10% 이상씩 감작스럽게 인상으로 등록금을 인해
대학등록금 4000만원 시대가 되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히 대학생활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사회권에서는 등록금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등록금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나감으로써 하는 사회적
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즐기기에 인공과학학교에

전학하여 2학년과 여생히 공부했습니다. 2학년, 감작하게도
국내사립대학연합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학교
근처에서 사귀어해 드는 방값, 생활비까지 지어 1년치 1500만원이
필요했기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부유하지 않기에 등록금을 감당하기에 무지거나 부담스러웠고,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내가 사회에 나가면 저금 '빚쟁자'로 시작
한다는 사실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더군다나 보장된 미래,
내가 학업을 기쁘게 갖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큰
장학생이라 해봤자 1학기 100만원을 받기에 이걸로 아르바이트
대학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장래의
때에 자기자신을 갖는 라정이 있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아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공장에서 작업하는 것과
같은 스텝 생활에만 의존하고, 5000만원의 빚을 지고 영원히
고정불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가 꼭 사립대학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중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뿐 아니라, 인생과 리더십, 각 방면
에서의 다양한 인재를 키워내는 진짜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대한중 증후군을 사귀어 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영웅 대학과도 비슷한 수준의
증후군이 리아야하기에 증후군인상이 불가피하리니, 사귀어야 할 것인
사귀어야지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지대적인 경제성 수치로서
'증후군'을 바라보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경우
장학제도와 제재제도로 작동되어져 있어 인종기증에 대한 의학성나
정당성이 잘 구축되어있는 것만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종기증에 대한 안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으며, 사귀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필요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바르셀로 (92
바르셀)에 대한 제재로 인종기증 잘 이루어져있기에 안락해서
공부하는 것이 지금도 논쟁하리던 중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대임금비가 5000만원 안되는 나라에서 증후군이 매년 인상된다면
이는 이사대를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인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
나는 것이 불가능이 가까운 사회가 리면 장악을 사회인사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회에 항복기 벗어,
인종이 되기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있는

우리학생들을 꼭 기쁘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증후군 안아'가 리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사회가
안락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꼭 이러한 학생들의 삶에,
나중에 함께 공감해리고 애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 선교사가 지대적인 항복제나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공부하기위해, 이 사상의 참모습을 위해
사귀리던 영세대학교가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의 안락사
가운데 거행 수 있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즐거웁니다! 감사합니다.

윤 2023 2023